

2021. 2. 4

은행/지주 Analyst <mark>은경완</mark> 02.6454-4870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News

재난 피해 때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의무화법까지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신청 대상자도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대출 감면을 요청 가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 이자유예 연장···정상화시 상환부담 분산

연합뉴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 3월 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권고

'예대율 105%' 허용 연장 시사…"코로나 대출지원 지속"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 은행권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LCR, 예대율 규제완화를 추가 연장이 가능함을 시사

라임펀드 사태로 손태승, 진옥동 중징계 사전통보

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통보 받아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

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들 '반쪽 승리'

서울신문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기한을 오는 5월2일까지로 한차례 더 연장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공매도보단 다른 이슈라는 판단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수 400만개 돌파

e대한경제

뱅키스는 2019년 한해에만 135만개, 2020년에는 전년보다 많은 170만개 등 2년 사이에 신규계좌 330만개가 늘어났다.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내놓은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온라인 금융상품권, 개인정보 입력이 불필요한 계좌 개설 절차에 힘 입어

금융위 "외화보험 판매서 과당경쟁"…금감원 점검 실시

연합인포맥스

보험사가 과당경쟁을 벌이며 외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해 금감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10년, 20년간 계약이 이행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지나친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과다 경쟁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혀

공식 출범 선언한 토스증권, "쉬운 MTS로 '2030 주린이' 겨낭하겠다"

한국경제TV

토스증권이 3일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 대형사 수준인 월간 100만 명 이상의 활성유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IT인프라를 구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